

# 광산구, 시민에 이로운 정책 찾는다

### 현장 중심 협업 행정 혁신 박차 명품길·고려인 문화관 등 답사

광주 광산구가 직접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실행 동력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시민에게 이로운 정책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생현장으로 나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을 재개하고, 올해는 동 주민과의 대화를 지역 현안을 놓고 즉문즉답 형식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광산구청'을 운영하고 있다.

박 구청장이 이 같은 현장소통 중심 정책 활동이 광산구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업무 방식에도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부서를 중심으로 정책 성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진지 답사, 현장소통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민선 8기 핵심 시책인 '명품 30리길' 조성사업 전담부서인 명품길추진단은 최근 목포시 고하도와 신안군 천사읍 일대로 '명품길 조성 선진지 벤치마킹' 답사를 다녀왔다.

명품 30리길은 송산근린공원부터 장복습지, 황룡강과 영산강이 만나는 동곡 두물머리까지 12km를 이어 광산구의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자연·자원을 활용해 시민이 편하게 걸으며 휴식하고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광주 대표 명소로 만드는 사업이다.

광산구 외국인주민과는 지난 17일 월곡고려인 문화관을 방문해 외국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주민과는 광주 외국인주민의 절반 이상(2만2000여 명)이 거주하는 광산구 특색과 외국



박병규(맨 오른쪽) 광산구청장이 공직자들과 목포시 고하도 돌레숲길을 걷고 있다.

인 지원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앞서 이달 초에는 유관기관과 현장 전문가 등을 초청해 광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규모와 관련 시설 현황, 주요 정책, 사업 등을 공유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 방향 설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과 교류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광산구 각 부서는 이처럼 현장에서 얻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시민에 이로운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외부 협업시스템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소장 중심의 '협업추진단'과 팀장·담당자 중심의 TF를 구성해 민선 8기 14개 중점 협업과제에 대한 부서 간 협업도 상설화했다.

광산구는 또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정책기획단을 구성·운영 중이다. 정책기획단은 매월 두 번째 수요일마다 원탁회의를 열고 광산구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해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 공직자 전체는 민선 8기에서 꿈꾸는 새로운 광산, 시민을 이롭게 하는 광산을 향한 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발로 뛰며, 직접 보고, 듣고, 배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여러 정책과 사업이 시민이 먼저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항공장애표시등 빛 공해 피해보상 마련한다

### 광산구의회, '주민 권리 구제' 간담회...공익소송 추진 논의

"비행기 소음에다 항공장애표시등 빛 공해까지 너무 힘든데요"

광주 광산구의회가 야간만 되면 깜빡이는 '항공장애표시등'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 빛 공해 피해 보상 마련에 나선다.

18일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아파트 주민 권리 구제'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법에 의해 항공장애표시등을 의무로 설치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련 비용 지원 및 보상 등의 공익소송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 1·2동·운남동)이 주재하고, 박태원 변호사(양우합동 법률사무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 광산구의원 등이 함께했다.

항공장애표시등은 비행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 존재를 알리기 위해 켜는 등으로 공항 및 군사시설 인근 일정 고도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현재 관내 아파트 10개 단지 100여 개소에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돼 있으나 이에 대한 비용 지원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은 기존 비행소음에 항공장애표시등 야간 점등으로 인한 수면 방해까지 더해져 생활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공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지원과 보상에 대한 법률은 미약하고 실효성이 매우 낮다"면서 "국토부와 국방부 대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를 구제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또한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에 따라 주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는 주민공익 보호 및 법률문제에 대하여 주민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로서 2021년 5월 공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해 광산구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추진되면 해당 조례를 활용한 상위법령 토대의 공익 소송 제기 관련 전국 첫 사례가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아파트 주민 권리 구제'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 의회 직원 공개적 전출 강요...광산구의회 의장 '갑질' 논란

### 의장 "일부 직원 일방적 주장"

광주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약화해 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권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발령은 집행부인 광산구 소속 공무원의 기관 내 전보 형식으로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의 경우 의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의 집행부 견제 가능 강화 등 기대를 모으고 출발했지만, 광산구의회에 경우 인사권을 갖게된 의장의 인사 전횡이 도를 넘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의회사무국 내부에선 김태완 의장이 자신의 마

음에 들지 않는다는 비합리적 이유를 들어 일부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의회를 떠나 집행부인 광산구로 전보 요청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직원의 경우 업무처리 과정에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압박을 주는 등 '갑질'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 의장은 지난해 7월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그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직원 4-5명에 대해 "함께 근무할 수 없다"며 수시로 광산구로 전보할 것을 강요했다는 게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김 의장은 의회 회의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을 직접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전보를 중용해 관련 직원들의 항의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또 의회사무전결처리 규정을 위반하고, 의사국장의 권한인 하위직원의 업무 분장까지 직접 챙기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줄 세우기'하고 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광산구의회 한 직원은 "김 의장이 전출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이 기안했던 서류를 눈 앞에서 찢어 버리는 횡포까지 부린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결국 견디지 못한 많은 의사국 직원들이 집행부인 광산구로 자리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자 광산구의회 의사국 직원 인사에서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등 총 7명의 직원이 집행부인 광산구로 자리를 옮겼으며, 지난 16일자로 광주시에서 전입 온 김종태 서기관이 의사국장으로 부임했다.

이에 대해 김태완 의장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일부 직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오해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사과까지 했다. 새롭게 의사국장으로 바뀐 만큼 의사국 직원들의 그동안 행태가 바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명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마을공동체 실현 첫걸음...광산구, 마을활동지원가 17명 위촉

광산구는 18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게 될 마을활동지원가 17명을 위촉했다.

마을활동지원가는 마을공동체 활동가 및 주민 모임 발굴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을 하고 동별 네트워크 지원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촉된 마을활동지원가 17명은 전문역량 교육을 수료했으며, 마을(21개동)로 '찾아가는 공모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마을 곳곳에서 공동체를 발굴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2023 광산형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은 1단계로 20일부터 찾아가는 공모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며, 각 동 주민자치회와 마을계획·의제를 공유한다. 2단계로는 2월 21일까지 광산구도시재생공동

체센터, 마을활동지원가 예비사업계획서 검토, 사전 컨설팅 등을 거쳐 최종사업계획서를 접수 받는다. 3월부터는 선정된 공동체들이 마을 곳곳에서 시민에게 이로운 좋은 공동체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민선 8기 핵심가치는 상생으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좋은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광산구는 2019년부터 광주 자치구 최초로 마을활동지원가에게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 10명, 2020년 16명, 2021년 14명, 2022년 16명을 선발해 5년째 운영 중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